

“광주문화재단 대표 공채하자”

이사진 15명 임기 만료... 변화위해 새 판 짜야

문화계 “이사회가 후보자 추천 부적절”

인사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광주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임기가 이달 말로 만료되면서 향후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계는 현재의 대표이사 선임방식은 불합리하다며 공개 채용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이달 말 현 노성대 대표이사와 이사진 15명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사무처장의 경우 전임 사무처장의 사적으로 올해 4월22일 임기가 시작된 김성 사무처장의 임기가 남아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적정한 인물을 숫자에 관계 없이 추천하면 이사장인 광주시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연임 가

능)이며 연봉은 9900만원이다.

현 노성대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직원 부당 채용과 관련, 전 사무처장과 동시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의사 결정권자 두 사람이 동시에 그만둘 경우 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가 반려됐다.

그동안 인사 문제와 조직 운영, 사업 전반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재단에 대해 현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광주시의 출연기관이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사업과 조직 운영에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그동안 제기된 재단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지역 문화계 단체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지극과 같은 방식으로 대표 이사를 선

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와 지역문화교류문화재단은 15일 “현 방식의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반대하며, 공개 채용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문화재단 설립 이후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행사, 문화공통 등 지역 문화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대표이사의 역할부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방식대로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면 선임 과정의 추후 오해 속에 출발부터 리더십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광주시·시의회·전문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채용 방식을 거쳐 전문성과 능력, 경영 마인드를 가진 대표이사를 선임해야만 광주문화재단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훗카이도 문화재단 초청 전시회’ 참여 광주문화재단 직원들

회의 참석않고 음주 의혹

광주 작가들 “언어 폭력도”

재단 “공식일정 아니었다”

해의 교류사업에 참여했던 광주문화재단 직원들이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주요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음주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9~1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지역 작가 7명과 함께 ‘훗카이도 문화재단 초청 특별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작가들로 이뤄진 광주뉴아트그룹이 주최한 것으로, 양 국 작가들의 교류를 위해 훗카이도 문화재단의 초청으로 이뤄진 행사다.

광주문화재단은 훗카이도문화재단과의 MOU 체결로 이미 연극 분야의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 지원을 위해 문화재단 정모 실장, 이모 차

장 등 2명이 동행했다.

그러나 행사에 참가했던 광주지역 작가들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훗카이도 문화재단이 제안한 한·중·일 3국 작가 회의에 불참했다. 훗카이도 문화재단측은 광주문화재단과 내년도 전시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가 B씨는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문화재단간 전시 교류를 정례화 하자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갔으나, 광주에서는 작가들만 참석해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며 “재단직원들은 같은 시각 훗카이도 총영사관이 초대했던 만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모 실장, 이모 차장은 훗카이도 문화재단이 주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음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이 다음날 모 작가에게 ‘좋은 술집’에 다녀왔다고 자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문화재단 직원들이 해

외출장까지 와서 일본과 광주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좋은 기회를 외면하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시에 동행한 광주지역 작가들이 9일 일본에서 소환할 공식 일정에 대해 토론하자고 제의했으나 재단 직원들은 “할 얘기가 없다”며 따로 외출했다.

A씨는 이어 “재단 직원 두 사람이 행사 마지막 날 저녁에 동행한 작가 대표를 술집으로 불러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져 서로 다치는 불상사 까지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모 광주문화재단 실장은 “공식일정이 아닌, 갑작스레 마련된 회의인터라 교류 방안에 대한 적절한 답을 줄 수 없어 훗카이도 문화재단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공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고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해명했다.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철도과업 장기화... 광주·전남 물류대란 현실화

KTX 17일부터 감축운행

노조, 19일 2차 상경 투쟁

철도과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내주부터 KTX 등이 감축 운행된다. 특히 화물 열차 운송률은 과업 닷새째 30% 대를 넘지 못해 산업현장마다 물류대란이 코앞에 닥쳤다.

15일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 노조 과업 7일째인 이날 현재 KTX 등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운행 중이다.

하지만, 화물열차의 경우 평시 대비 36.4%, 비상열차운행 계획 대비 100%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다. 특히 철도 과업 장기화에

따라 대체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코레일은 내주부터 KTX 등 대부분의 열차를 감축 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X는 오는 17일부터 하루 평균 주중 200회에서 176회로, 주말 232회에서 208회로 24회(주중 대비 12%) 감축 운행된다.

철도과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과업 이후 화물열차 수송율은 30%대로, 산업현장마다 물류난을 호소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운송량의 70~80%를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업계를 비롯해 유연탄 등의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시멘트

공장 연료인 유연탄의 재고량도 갈수록 4~5일치로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 물류수송도 하루 평균 1만3590t에서 6000t으로 55.8% 급감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선 유류, 순천 태극역에선 석탄·철강, 광양역에선 수출입 컨테이너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업이 장기화되면서 광주·전남 물류대란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수서발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며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장성택 부인 김경희 견제... 최측근 일부 생존

로두철·문경덕·리영수 등

정부 “내부 추스르기” 분석

장성택 처형의 후폭풍으로 북한에서 대규모 숙청의 공포가 이어질 것인 전망 속에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가 견제할 수 있는 인물도 일부가 확인됨에 따라 북한의 숙청 정국이 일단 고비를 넘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14일 김국태 대검찰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경희의 이름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일각에서 망명설까지 제기된 로두철 부총리는 물론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리영수 당 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장성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도 대거 장의위원회에 포함됐다. 이는 이들이 당장은 장성택 처형의 후폭풍에서 벗어났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성택 인맥으로 분류돼 본국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 이재룡 주중 북한 대사의 활동도 15일 북한 언론의 보도에 나왔다.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노동신문은 장성택의 재판 소식을 전하면서 수갑을 찬 채 보위부원 두 명에게 결박돼 재판정에 선 장성택의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김경희의 정치적 위상에 변화가 없고 일부 장성택 측근의 ‘생존’도 확인되자 정부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장성택 숙청 이후 내부 추스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장성택 처형 정국 속에서 주

말 내내 주요 당국자들이 자리를 지키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정세의 변화 상황을 면밀히 주시했다. 튜깅재 통일장관은 전날에 이어 15일에도 청사에 출근, 당국자들로부터 북한 내부 동향을 보고받았다. /연합뉴스

전남 천일염 생산 38만... 역대 최고

전남지역의 올해 천일염 생산량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지난 199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전남도와 대한염업조합 등에 따르면 올 천일염 생산량은 38만1642t으로 전국 생산량 42만439t의 90.8%를 차지했다. 지

난해 생산량 29만294t보다 무려 9만1348t(31.5%)이 늘었다.

전남도는 염전시설 현대화와 자동화, 태풍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쾌청한 날씨 등이 증산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천일염은 1997년부터 정부의 감축 정책

에 따라 염전 520곳(2천954ha)이 줄었으며 생산량도 급감했다. 이후 2008년 광물에서 식품으로 취급 규정이 바뀐 후 생산량과 염전 면적이 점차 늘고 있다.

한편 올해 생산량 중 33만t은 김장철을 맞아 이미 출하됐고, 현재 재고량은 평년에 비해 2만t이 더 많은 5t이다. 천일염은 간장 담그는 시기까지 꾸준히 출하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고량은 평년 수준으로 남을 전망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방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중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중앙지점 | 653-4474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경의 스피치를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고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히 미려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동양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 062) 651-6581
010-3690-7790